

延吉에서 바라본 한국과 북한 그리고 통일

Unification of Korea, Reportage from Yanji, China

박연진 _연변과학기술대학, 사회교육원

Park, Yeonjin _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연길에 살면서 G2로 거듭나는 거대한 나라 옆에 붙어 있는 작은 한반도를 보면서 통일에 대한 갈증을 느꼈고, 어렵지 않을 것이라던 생각들은 산산조각 부셔졌다. 슈퍼차이나의 용트림을 보면서 단순히 공산국가 중국이라는 이념을 넘어 시장자유화라는 자본의 움직임은 더욱더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중국을 변화 시키고 있다. 그러한 중앙정부 아래 작은 자치구인 조선족 동네 연길 또한 다른 곳의 이주민을 받아드리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작지만 실속 있는 동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있는 동네, 한민족의 자긍심 및 생존력을 보여준 그러한 연길에 살고 있다.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나의 나라 동포를 만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이곳에 오면서 찬란했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배우기 이전에 조선족이라는 같은 뿌리의 한민족을 마주 한다는 것은 여간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남북으로 나뉘지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니 한국전쟁이라는 폐허를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또한 만주사변¹⁾ 이후 옛 간도의 영유권은 현재 중국에게 넘어 갔으며, 찬란했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또한 동북공정을 통해서 중국으로 천천히 넘어가는 듯 보인다. 현재 이곳을 점령하고

1) 1931년 9월 18일에 일본 관동군이 군사를 일으켜 만주를 침략·점령한 사건을 만주 사변(滿州事變)이라 부른다.

있는 중국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일환이며, 훗날 일어 날수 있는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I. 조선족(朝鮮族)

낮설지만 낮설지 않은 우리의 동포 그리고 우리가 있고 있던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국인 한반도(남한/북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쏟는 관심만큼 우리 남한 국민들은 그들에게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연변에 있다 보니 많은 조선족을 만나고 보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들의 질문에는 한국에 대한 동경 그리고 관심이 녹아있다. 한국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도 곧잘 묻는다. 일반적인 생각을 전할 뿐인데, 그들이 어이없어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조선족의 이미지와 연변에서 생각하는 조선족의 이미지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그들은 자신들을 한국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인인 조선족이기 때문이다.

연변에서는 북한출신의 조선족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헤이룽장 성에 주로 거주하는 남한의 경상도 출신 조선족도 있다. 연변은 북한과 가깝고 토지가 헤이룽 강보다는 비옥하며 두만강이 흐른다. 옛 북한 사람들이 먼저 이곳 연변에 와서 정착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를 당했던 남한 사람들은 이미 북한 사람들로 빼곡해진 연변에 정착하기 어려워 위로 올라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현재의 헤이룽장 성이다. 그곳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으며, 거기에서도 정착을 못한 사람들은 현재의 블라디보스토크인 연해주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것이 한민족 디아스포라²⁾를 경험하게 되는 뼈아픈 역사의 시발점이 되겠다. 스탈린 정부 아래에서 강제로 행해진 극동지방의 고려인들 이주 프로젝트였다.

2) 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집단 또는 그 거주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거기에는 3가지 원인이 있었다.³⁾ 첫 번째는 스탈린이 서명한 문서에도 있듯이 극동 지역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 스파이의 활동을 방지하고, 일본인과 고려인의 외모 구분이 어려워서 일본 첩자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극동 주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의 규모가 생각보다 커서, 고려인의 자치구 형성 후 미래 독립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1938년 포시에트 군 공산당 지구당 제1서기였던 김 아파나시는 1934년에 이미 극동주 지역에 유태인 자치주가 설립된 점에 주목하고 극동주를 소련에서 분리하기 위한 무장봉기를 획책했지만 결국 실패해서 총살을 당하고 말았다. 세 번째는 소련에서 실시한 농업 집단화 정책 때문이었는데, 인구가 급감하게 된 카자흐 공화국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인구를 공급하고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인위적인 인구 유입책이 필요하였다. 당시 극동 지역에서 카자흐 공화국으로 초청된 농업전문가들이 1928년에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벼농사를 성공시키고 있었다. 농업기술을 가진 극동 거주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적합한 민족으로 판단되어 그들을 강제 이주 시켰다.

연길의 조선족들은 한국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호기심 이상이다. 한국인인 나에게 많은 질문들을 쏟아 놓는다. 그들은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촛불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목격하고서 사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쉽게 결론을 내려 버린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잔혹성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들의 이념을 만들었으니 정치 체제가 다른 곳의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갈지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는 연길에서 가까운 ‘용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한국에서는 연희전문대학에 유학 와서 지낸 것이 잠깐이라면, 이곳에서는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조선족들 또한 윤동주 시인은 이곳의 자랑이자 민족의 정기이다. 그래서 일까? 윤동주 생가와 학교 및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국인 윤동주가 아니고, 조선족중국인 시인 윤동주로 표기 되어 있다.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baidu)의 백과사전에 윤동주시인을 중국인으로

3) 출처 및 참고 한민족문화대백과

로 소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조선족과 이야기 한적 있는데, 오히려 나의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당연한 것을 왜 질문하느냐면서 말이다.

II. 자치주(自治州)⁴⁾

연변자치구⁵⁾의 6개시와 2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과거 많은 조선인의 유입으로 중국 중앙 정부가 허락한 독립적인 조선족 자치구이다. 즉 중국이라는 영토 안에 있는 작은 조선인 마을인 것이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법의 체계 안에서 인정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조선어와 중국어 병용표기를 한다. 하지만 남한 사람인 내가 그 뜻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여기서 중국의 탁월하고 능숙한 외교술, 소수민족 통치방법을 엿볼 수 있었다.

연길은 더 이상 조선인을 위한 자치구가 아닌 중국의 하나의 성⁶⁾으로 변하고 있다. 축소되는 조선족 인구밀도와 증가하는 한족의 인수로 인해 이곳은 조선족 자치지구로서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서서히 중국의 문화에 녹아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연길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 중이다. 마치 공사장을 연상케 할 만큼 곳곳이 도시건설로 분주하다. 이것은 농촌에서 오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현재 많은 아파트를 짓고는 있지만 사실 중국은 호구(戶口)⁷⁾라는 제도를 가

- 4) 1952년 연변조선족 자치구 설립되었고, 1955년 자치구에서 자치주로 변경되었다. 연변은 6개의 시와 2개의 현으로 구성되었는데, 연길시, 룡정시, 도문시, 훈춘시, 돈화시, 안도현, 왕청현이 각각 그것이다. 현재 한족, 만주족, 회족 등등 10여개의 민족이 함께 살고 있다.
- 5) 19세기말까지 연길의 대부분이 미개발 지역이었다. 기본적으로 기름진 두만강 유역과 창바이산맥(長白山脈)의 험준한 산줄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1820~50년에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이주해 와서 살았으며, 1860년 중국정부는 러시아가 이곳을 잠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이곳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이주금지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이곳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국인은 소수가 이주해온 반면, 수많은 조선인이 이주해왔다. 다음백과
- 6) 중국 행정구역은 22개성(타이완성 포함), 4개 직할시(북경, 상해, 천진, 중경) 및 4개 자치구로(신장, 서장, 영하, 내몽고)로 구성되어 있다.
- 7) ‘금수저’, 호구제도 사라질까?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는 계급, 개선 방법은? 『프레시안』 (2016.03.10.)

지고 있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아니 이전할 경우 혜택이 없다. 이것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로 불린다. 1950년대 말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개발로 인해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를 막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었으나, 현재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목줄 같은 족쇄가 되었다.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 호구가 최고가에 거래 될 만큼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니 자국에서조차 차별받는 외지인의 삶은 짝뻍하다. 시진핑 주석이 13년 전 칭화(淸華)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원 경제학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할 시기인 2001년 12월 ‘중국 농촌 시장화 연구’라는 총 169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해 중국 호구제도 개혁의 필요성⁸⁾을 강조 했다고 하니, 이것은 없어져야 할 존재이거나, 개혁해야 할 과제는 틀림없다.

거주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하는 이곳에 어떻게 많은 한족들이 오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연길과 가까운 어느 지역에 비만 오면 홍수가 나는 지역이 있었다고 한다. 정부에서 그 지역을 보수 또는 개발하기 위해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주를 권했다고 한다. 빈손이 아닌 아파트와 생활비를 벌수 있는 영업용 택시 한 대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그렇게 많은 한족이 연길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한다. 현재 연길에 정말 많은 택시가 있는데, 아마도 이때 들어온 인구들이 아직도 이 일에 종사 하고 있는 듯 보였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연길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상반되었다고 한다. 이곳이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은 단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 졌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족 삶의 질도 향상되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한국에서 작게는 몇 년 많게는 몇 십 년을 살고 그곳에서 돈을 모아와 이곳에서 집을 구매하고, 소비를 한다. 대부분 한국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남한의 한국인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단순히 알고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조선족이 아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조선족의 아이들은 소득에 비해 많은 돈을 사용하는 소비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한 아이들 중에서는 보이싱 피싱을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남한의 한국어를 습

8) “중국 호구제·도시화 개혁...시진핑·리커창 박사 논문에 답 있다.” 『아주경제』 (2014.7.31.)

특하여 어르신들의 돈을 쉽게 갈취한다고 들었다.

이곳은 흔한 제조업 공장도 없고, 큰 회사도 없다. 이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영업에 의존하는데, 그것들이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도로 곳곳에 넘쳐 나는 식당, 슈퍼, 약국 등등은 연길의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Ⅲ. 조선족교육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같은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진 교육을 공유했고, 같은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민족이지만 이질적인 언어 습관과 이방인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 본능 그리고 중국인일수도 한국인일수도 없는 가슴 아픈 삶의 현실 등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어를 지금까지 보존되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역할을 하는 곳은 조선족 학교다. 대부분의 조선족 어린이는 조선족 유치원을 시작으로 조선족 학교를 다니게 된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한족의 중국어와 성조⁹⁾ 및 발음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중국의 대학을 가게 되면 각각의 민족 그룹에서 활동한다. 즉 동화되기 보다는 민족끼리 친분을 쌓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몇몇의 중국인 친구들은 조선족학교를 다녀서 중국인-한족 친구보다 조선족 친구가 더 많다고 한다. 역시 교육받은 환경이 인생의 중요한 좌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선족 학교의 모든 교과과정은 중국학교의 것을 조선어로 번역한 것이며, 역사는 당연히 중국 역사를 그들의 언어인 조선어로 배우게 된다. 그렇지만 많은 조선족의 이탈은 지방 및 도시에 있는 조선족 학교를 줄어들게 만들었고, 작은 지방의 소학교들은 그들 나름대로 특성화교육을 내세우면서 농촌지역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는 조선족들 또한 한족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는 추세다. 아무

9) 중국어 하나하나 글자에 붙어 있는 음의 높낮이를 말한다. 1성부터 4성까지 있으며, 성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래도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IV. 연길의 모습

연길시는 농촌의 도시 같은 곳이다. 시 가운데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있고 주변에 거주지인 아파트들이 널려 있다. 이곳의 생활수준은 같은 규모의 다른 도시보다 수준이 꽤 높다. 이 작은 도시의 소비가 살아 있다. 아마도 많은 조선족들이 해외로 나가 돈을 벌며 자국으로 송금을 하면서, 이곳의 낮은 소득에 비해 높은 소비가 주로 이루어진 결과라 볼 수 있겠다.

이곳은 아직도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 중인데, 그중에 한 구역이 흥미롭다. 산 언덕배기에 건설 중인 아파트단지에는 연길시 현지 사람들이라면 이곳에 투자하지¹⁰⁾ 않을 것이라고 한다.

도대체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흥미로운 곳은 충격적이게도 예전에 ‘공개 처형장’이었다고 한다. 죽어야 할 이에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사형제도는 너무나 엄격하여 우리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무고하게 죽어가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공개로 처형하여 사체를 리어카에 끌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았다는 이야기는 과히 충격적이다. 죄인을 실어 나르는 포터가 덜컹덜컹 오는 날, 우연히 그곳에 타고 있는 죄수와 눈이라도 마주치는 날이면, 며칠 동안 악몽을 꾸다고 한다. 불과 몇 년 전에 장소를 옮겼다고 하는데, 아마도 연길시가 팽창하면서 다른 지방으로 옮긴 것 같다. 그리고 중국 정부 스스로도 공개처형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시장개방이후 많은 외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들의 사진 및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유출 되면서 곤혹을 치렀기 때문이란단다.

사드문제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자유롭게 한국 방송을 볼 수 있었다. 그것도 중국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송출하는 방송국 및 인터넷 회사로부터 말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10) 중국에서의 아파트 소유개념의 한국의 소유와 다르다. 대부분 아파트를 구매하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년 수로 계산한다.

(Social Networking Service)¹¹⁾를 모두 막아 놓은 중국에서 예외인 행보였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롯데 성주골프장의 사드반입 이후로 잘 나오던 채널은 암흑으로 변하였고, 연변 자치구가 1호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불법이지만 대부분의 집에 가지고 있던 위성 안테나는 ‘화단 정리’라는 목적으로 시당국에서 모두 강제 철거했다. 그렇게 외부와의 접촉이 끊겼고, 한국과의 접촉마저 끊어야 했다.

V. 3國人¹²⁾ 이야기

주변의 오래 거주하신 한국인에게 듣는 연변 이야기는 마치 할머니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흥미롭다. 그분들은 대부분 교회 관련 일을 하시거나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거나 사업을 하신다. 또는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거나 들어 내 놓지 않는 분들도 있으며, 그러한 질문을 굉장히 난처하게 생각한다.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폐쇄적인 사람들도 간혹 존재 한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예전에는 많은 한국인들의 유입으로 조선족들이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한국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한국인들을 불신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같은 동포이지만 섞이지 않는 묘한 움직임들이 포착된다. 처음에 이곳에 와서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언어소통이었다. ‘이곳은 한국어가 통하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했지만 어디를 가도 조선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다. 그래서 어설픈 중국어로 필요한 단어만 나열했는데, 본인이 답답한지 조선어를 시작한다. 이런 일이 몇 번 있고서는 그들이 ‘한국인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족과 대화할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한두 번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

11) 대표적인 Facebook, Youtube, Twitter, Kakao Talk, Google 등 많은 외국의 사이트들이 접속되지 않는다. 대부분 VPN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서, 접속을 하거나, 그들의 사이트인 baidu, Youku, 또는 Wechat 등으로 대신한다.

12) 여기서 3국인은 연길에 살고 있는 뿌리는 한민족이나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한인, 북한인, 조선족을 의미한다.

다. 그들의 어법은 과격했고 발음은 강했으며, 중국어를 그대로 번역한 단어들은 이해하기 불가능했다. 중국어를 배우면서 그 단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강한 악센트는 북한과 가까운 함경도인이 대부분 연변으로 이주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가 풀렸다. 그렇다고 익숙한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친절한 중국인 상점을 주로 애용한다. 그러니 반 토막 난 한반도에서 하나의 한반도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예상외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어느 해외나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교회를 매개체로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모인다. 이곳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철학을 비판하는 내용을 설교할 경우 신자들 중에 있는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가 몇 시간 고문 아닌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한다. 공안들이 가끔씩 들어와 설교를 듣는다고 하니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의 교회에 한국인의 출입은 불법이며, 한국인의 교회에 중국인의 출입 또한 위법이다.

이번에 사드문제로 맞물리면서 연변에는 한바탕 회오리가 지나갔다. 많게는 10년 이상 및 몇 년씩 거주 했던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시켰는데, 그들에게 정리할 시간은 불과 일주일이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그들의 거주지를 정리해야 했고, 쫓기듯 이곳을 떠나야 했다. 이유는 ‘선교활동’이었다. 선교활동은 중국에서 불법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한국인만을 위한 교회인 동시에 유아무야(有耶無耶) 봐주는 거라고 한다. 그런데 그냥 봐준다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다.

일반인의 경우는 잘 나오던 거주비자가 거절되거나 또는 아주 짧은 기간만을 주어 다시 연장하게 만드는 귀찮은 일들이 추가되었다. 간단했던 절차가 약간 복잡해졌고, 구체적인 확인을 원했다. 이 당시 한국도 ‘공자학교’¹³⁾ 중국인교사의 비자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당시 양국의 일반인들은 언제까지 전개될지 모르는 이 시국을 걱정하거나 불안해했었다.

연길에는 2개의 대학이 있다. 하나는 도올 김용옥선생께서 ‘중국 이야기’¹⁴⁾

13) “공자학원 비자문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조짐,” 『매일경제』 (2017. 2. 10.)

14) 『도올의 중국 일기』(통나무, 2015)는 선생이 1년 동안 연변대 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일기형

를 집필하면서 근무하셨던 연변대학 그리고 연변대학의 부속대학이자 한중합작의 연변과학기술대학이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학생 전원의 숙식이 가능한 기숙사를 제공하며, 심지어 교직원의 숙소도 제공한다. 흑자는 말했다. 공산체제에서의 인민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받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래서인지 학교에 있는 필기도구조차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분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행동들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고 한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은 최초의 한중 합작 대학이라는 타이틀도 있지만, 평양에도 제2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대학이다. 원래는 북한 어느 지방에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최고 주석(主席)께서 평양에 유치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평양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 잡았으며, 북한의 인재풀(人材Pool)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교수진은 없으며, 대부분은 북미 시민권자인 한국인들이 근무한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 받았다고 하지만, 삼엄한 감시 속에서 세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분들이 자랑스러웠다.

동네의 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곳에 북한청년들이 2인 1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항시 2인1조로 움직이며 운동도 같이 하는데, 가끔 주변인들과 대화도 하는 모양이다. 자신들이 IT업계에 근무한다고 소개를 했지만 그들이 회사 나가는 모습을 본적은 없다고 한다. 흑자에 의하며 아마도 재택근무하면서 본국(북한)의 명령을 받아 주로 해킹관련 일을 한다고 한다. 남북한의 관계가 경색되면 이들 역시 보이지 않다가 평화 태세로 돌아서면 다시 자유로이 활동을 한다고 한다.

연길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문시가 있다. 그곳은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이며, 두만강이 흐른다. 실제로 두만강을 보면 중국과 북한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건너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을 건너게 되면 국경 수비대에

잡히기 쉬워서, 주로 산을 통해서 내려온다고 한다. 이들은 이념적 갈등보다는 경제적 허덕임에 탈북을 감행한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협약으로 탈북자는 범죄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난민과는 거리가 멀어 복송을 한다.¹⁵⁾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야 하는 이들은 자신들을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며,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달라고 절규한다고 한다. 어차피 북한으로 돌아 가봐야, 공개 처형과 가족 몰살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의 마녀 사냥법이 이곳에는 존재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독재 권력의 부패를 여과 없이 보여 주고 있다.

연길에서는 쉽게 북한인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과 쉽게 이야기 하지는 못한다. 남한인의 호기심에 북한인들이 다칠까봐 대부분 조심도 하지만, 한국의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¹⁶⁾ 역시 개인으로서서는 부담스럽기에 쉽게 그들에게 다가가지는 않는다.

한번은 북한 청년이 이곳 어학당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이산가족을 실제로 가지고 계신 한국인 한분이 그쪽 소식이 궁금하여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남한인이 물어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한국인 한분은 신체검사⁷⁾를 받으러 갔는데, 뜬금없이 그들을 몰고 온 한명의 가이드가 말하길 북한 사람들에겐 말 걸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민간인들 역시 타국에서 조차 단순한 인사 한마디 건넬 수 없는 현실이 서글퍼진다.

15) 레이몽 아롱에 따르면 인권은 국제정치의 주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항의를 하며 권력의 희생자를 옹호합니다. 이것은 유익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며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입각하여 외교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레이몽 아롱, 김종호 옮김, 『참여자들과 방관자』(서울: 홍성사, 1982), p. 302. 탈북자의 인생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 문제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야기되거나 전쟁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데, 이는 막스 베버가 강조한 ‘책임윤리’(the ethic of responsibility)에 입각해서 정치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16)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타법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42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하는 자 및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죄이다.

17) 중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인 비자일수에 따라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다. 병원에서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 북조선의 사람들이다.

VI. 수업시간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라는 공산주의 슬로건 아래에서 사용하는 본토 중국어는 존칭어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민주주의의자 서비스업이 발달한 대만의 중국어는 비교적 존칭어가 발달했다. 중국어를 배우면서 격식 있게 중국어를 사용하고 싶어서 해당교사에게 물어 보았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고만 들었고, 대만의 존칭 중국어를 사용하면 본토 중국인들 또한 좋아하는 하나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중국어의 표준어는 ‘보통어’이다. 보통어는 중국 전역에서 모든 중국인들이 교육받고 있으며, 중국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 중국은 모든 지역의 방송에 자막을 의무적으로 넣는다. 표준어가 아닐 경우 발음이 다르더라도 성조를 가지고 그 의미를 서로 파악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성조가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

남방계의 중국어보다 북방계의 중국어가 더욱더 표준어에 가깝고 대부분의 인민이 표준어를 많이 쓰는 지역은 헤이룽장 성의 하얼빈이다. 그곳은 표준 중국어를 배우기 좋은 곳으로 명성이 나 있으며, 연길 또한 대부분이 표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한다.

어학당의 구성원들은 지리적 특성상 주로 한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동포인 고려인¹⁸⁾과 러시아인 그리고 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배우는데 반해, 위에서 언급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조선족은 한국어를 많이 배운다. 조선족의 경우 자신들의 강한 발음을 고치거나, 한족학교의 교육으로 인해 한국어교육이 필요 하다고 했다.

본국 한국어와 연길의 한국어 교육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남한의 한국인 교사가 직접 교육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타 국가의 외국인들도 이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많이 받는데, 다들 생활환경과 교육비 장점을 뽑았다. 한국과 비슷한 도시형성과 조선족동네 다운 한국어 사용 및 중국어 사용 그리고 비용의 장점이 한국어 아닌 또 다른 지역 연길에서 한국어 교육의 메카로 떠오르고

18) 위대한 조국전쟁 참전자 정상진, “고려인 강제이주의 역사.” 『고려일보』(2007. 8. 24.)

있다니, 참 흥미롭다.

연변과학기술대학교는 한중합작대학교의 특성상 한국인교수들이 주를 이루고 한국어로 수업하는 과목도 많기 때문에 학교의 선발기준이 중국어와 한국어 능력을 먼저 평가 한다. 그리고 영어과(English Studies)는 대부분의 교수진이 미국인으로 이루어져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타 대학보다 월등하고 한다.

처음에 교실에서 만났던 학우 고려인들 봤을 때, 머릿속이 복잡해 졌다. 한국인과 다르지 않은 외모 그리고 성실한 수업출석과 태도는 감동적 있었고, 언제나 공손했다. 중국어교사들은 그들을 또 하나의 다른 지역에 있는 조선족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들도 그렇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외국인에게 자신의 민족뿌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한 설명일 뿐이다. 그들은 조선족과 분명히 다르다.

고려인의 경우 소련의 해체를 지켜보면서, 러시아, 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등 또 다시 흩어져야 했다. 한민족의 근면함으로 버텼던 소련의 생활을 또 다시 정리해야 했고, 또 다른 중앙아시아의 언어를 배우면서 적응해야 했다. 이들 중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 있고, 대륙횡단열차에서 죽어서 버려진 자신들의 선조들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1931년 만주 지역이 일본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면서 극동 정세는 소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1937년부터 극동 지역의 일부 고려인들에 대한 강제 이주 소문이 무성했던지라, 그곳의 고려인들은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들을 혁명 광장으로 불러 모았을 때, 대부분은 평상시 차림으로 많이들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1937년 10월 4일, 5일, 7일, 9일, 11일, 13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이주가 진행되었는데, 이곳은 10월만 되어도 추운 극한의 지방이다. 그러한 추위 속에서 옷가지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광장에 모이자마자 열차에 몸을 실었다. 당시 열차는 초과된 인원을 꼭꼭 눌러서 태웠고, 그 안에서 추위를 이기지 못해 병에 걸려 죽는 이가 부지기수(不知其數)였으며, 죽은 이들은 달리는 기차에서 던져서 버려졌고, 기차길 근처의 시체들은 그렇게 쌓여만 갔다.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버려야만 했던 고려인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조선족의 경우는 중국의 한 지역에 정착해 살았던 반면 고려인은 나라 없는 떠돌이 삶을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 양자의 삶은 크게 달랐다. 또한 중국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정치적인 변화가 적었으나, 고려인이 살았던 소련의 경우 붕괴되어 독립국으로 해체되었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또다시 독립국의 언어를 습득하거나, 또 다른 문화와 정치 체제에 적응해야만 했다.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정말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외래어를 중국어로 바꾸어 놓은 단어를 외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고유명사의 경우 외래어로 표기하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그것을 모두 중국어(한위:汉语)로 바꾸어 놓는 것을 보고 ‘중화사상’¹⁹⁾이 불현 듯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지나쳐 언어에도 그들의 민족적 우월성과 주변국을 오랑캐로 생각하는 그들의 오만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배우는 외국인 입장에서 그들의 법에 따라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었다.

한번은 택시를 타고 공원교(公園橋)를 가는데, 1성,2성,2성의 성조로 이루어진 이 글자는 높낮이가 있다. 그런데 친절하지도 않은 조선족 택시기사께서 높낮이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 앞에 가는 독일차 아우디(Audi)를 보면서, 저것은 ‘오디’인데, 왜 ‘아우디’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게 핀잔한다. 나 참여어가 없어서, “저것은 독일차이고, 독일에서 ‘아우디’라고 합니다!”라고 쏘아붙이며 택시를 내린 기억이 있다.

수업시간에 가끔씩 중국문화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궁금하여 중국의 현안의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없거나,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중국인들은 그들의 중앙뉴스에 별 다른 관심이 없다. 외국어디서 볼 수 있는 신문 가판대는 찾기 힘들다. 또한 이삿짐이나 물건을 포장할 때 함부로 사용하는 신문지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 이곳의 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날 하루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것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알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더

19) 중화사상(中華思想)이란 중국인은 예로부터 세계의 중심이며, 가장 발전된 민족이라는 뜻으로 자기 민족적 우월성을 강조한 사상이다.

재미있는 것은 2배로 오른 버스 요금을 대부분의 승객이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운전기사 역시 정확하지 않은 요금에 관심이 없으며, 연결주민들은 현재 오른 버스 금액에 대해서 불만을 정부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이 뉴스나 신문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자국의 주식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막연하게 동경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체제상 굳이 언론과 친해질 이유를 찾지 못해서는 아닐까 생각해 본다. 중국도 현재는 많은 인재들이 서구에서 돌아와 중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는데, 본국에서는 출판 금지되었어도, 대만에서는 출판이 된다고 한다. 관심 있는 이들은 대만에 가서 열람한다고 하니, 이것 참 흥미롭다.

몇 달 전에 일어난 터널 어린이 버스 대참사²⁰⁾는 중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한인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해 주었다. 어느 나라라고 해도 해외에서 안전은 자신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기에, 후진국이라고 조심하고, 선진국이라고 믿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는다. 하지만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처 하는 방식이 확실히 다르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한 고민에 빠졌다.

해외에서 교민 또는 유학생들은 문제가 발생 시 대부분은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한다.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는 탈북을 원하는 북한의 외교관²¹⁾이 남한의 대사관에 전화해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없으며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한 사건이 있었다. 급박한 상황의 도움 요청을 무미건조하게 받아드리는 행태는 근절 돼야 할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민수와 상관없는 대사관의 열악한 인력 배치는, 교민들이 대사관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대사관 역시 작은 인력으로 해결해야 사건 사고가 많다보니 교민들을 사고뭉치 대하듯 한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불신이 더 깊어졌다. 본국도 교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었으니, 본국의 공권력 또한 교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0) “중국 산둥성서 유치원 버스 사고…한국인 어린이 10명 사망,” 『한겨레』 (2017. 5. 9.)

21) “탈북 외교관 한진명씨 망명 타진 전화하자 ‘담당자 퇴근…나중에 답변’” 『세계일보』 (2017. 6. 9.)

VII. 통합(Unification or United)

대한민국헌법 3조²²⁾에서 애매모호하게 정의한 대한민국영토로 보면,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영토에 불법체류중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이념을 달리하며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한 개의 나라 설립이 가능한 것일까? 분단 7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나라라고 우기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다.

하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과 교류하는 것이 조금 더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호를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지만, 서로 다른 이념과 법테두리 안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의 세월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은 UN에서 인정받은 개체(個體) 국가이다. 북한은 자유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대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이 이해하는 중화민국 대만²³⁾과는 크게 다르다. 중국이 당당하게 대만을 자신의 나라로 편입시키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UN에서 남한의 한국과 북한의 조선을 서로 다른 개체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주장하는 통일을 우리의 입맛대로 다루기보다는, 전략적인 외교로 풀어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 몇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과 북한은 서로를 의지하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만큼이나,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신들의 일당 공산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중국 정부에게는 북한의 붕괴는 자칫 자신들의

22)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23) 유엔 총회는 표결을 거쳐 1971년 10월 25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엔의 새로운 중국 대표로 인정하고 중화민국의 대표권을 경질하는 제2758호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중화민국은 유엔을 공식적으로 탈퇴하였고, 중화민국은 사실상 유엔 및 유엔 산하 기구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파급으로 중화민국의 국제적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유엔 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미국도 상황이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타이완 지구만을 대표하는 중화민국의 의석이라도 보존해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에 중화민국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재가입을 수차례 타진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대와 유엔 내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하여 모두 좌절하였다. 위키백과.

안위에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자멸(自滅)한다고 해도 그것이 대한민국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쉽게 장담할 수도 없다. 북한이 같은 이념과 체제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중국의 또 다른 자치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주변국에 대해서는 기미정책(羈縻政策)²⁴⁾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특성상 북한의 행태를 비난하거나 그들을 억압하지 않는다. 북한 역시 같은 피를 나눈 동포보다는 중국의 체제(體制)와 더 어울리는 듯 보이며, 북한에서 민중 봉기 및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調査)들이다.

지금의 G2의 국가가 된 중국은 험난한 길을 걸었다. 1989년 톈안먼 광장 사태²⁵⁾로 인한 서구 열강들의 부담스러운 압박, 그리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소련의 해체는 중국에게 새로운 존립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²⁶⁾ 유소작위²⁷⁾ 화평발전²⁸⁾으로 이어진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그들의 칼을 가슴에 숨기고 지금의 슈퍼차이나가 되기까지 인내하였고, 주변국을 위협하며 추격하기 시작했다. 자국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 하여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또한 화평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사회통합을 우선시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나라의 관리 및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 불어를

24) 기미정책(羈縻政策)은 중국의 역대 왕조가 이민족을 통제했던 방법의 하나다. 기(羈)는 말의 고삐를 의미하고, 미(縻)는 소의 굴레를 의미하며, 기미는 고삐와 굴레로 우마를 다루고 부리듯이 주변 이적 및 만이를 부리고 제어한다는 뜻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춘식, 『중화사상의 이해』 (신서원, 2002), 244-258.

25) 1989년 6월 4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학생-노동자 시민들을 중국 정부에서 계엄군을 동원하여 탱크와 장갑차로 해산시키면서 발포,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을 말한다.

26) 도광양회(滄光養晦)는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칼날의 빛을 칼집에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뜻이다.

27) 유소작위(有所作為)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으로, 2004년 이후 중국이 취하고 있는 대외정책이다.

28) 화평발전은 ‘화평굴기(和平崛起)’라고도 한다. 후진타오(胡錦濤)가 추진했던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면서도 평화와 자주성을 견지하는 유연한 외교 전략이다.

모두 해야 한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의 지리적인 특성상 2개의 언어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퀘벡의 자유권 보장과 독립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캐나다 역시 퀘벡을 프랑스자치구로 인정하며 퀘벡과 온타리오 경계선인 오타와를 수도로 정하여 2개의 언어를 국어로 지정했다.

사실상 1840년 캐나다는 “Upper Canada”와 “Lower Canada”로 분리되어 있다가 1841년 합병되어 최초의 수도로 정해진 곳은 온타리오 주의 킹스턴(Kingston)이다. 당시 영국은 미국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현재의 오타와(Ottawa)를 수도로 정한 이유도 있지만, 수도 결정을 놓고 몬트리올, 킹스턴, 토론토, 퀘벡시티 등의 경쟁 또한 치열하였다.

과거 이민자들의 집합체이던 캐나다는 수도결정을 두고 민족, 종교 갈등이 심해지자, 1858년 당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개입으로 인구 불과 2만 남짓한 이 도시가 캐나다의 수도로 결정되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퀘벡과 영국령의 온타리오주 경계로 흐르는 세인트 로렌스(Saint Lawrence)강을 기준으로 한 수도 결정은 아마도 화합을 강조하는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입헌군주제인 캐나다는 영국에서 총독을 파견하는데, 그는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 영국의 경우 정식 이름은 “Great Britain” 또는 “United Kingdom”이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영국은 “England”이며, 이름에서 보다 시피 영국은 여러 개의 왕국이 연합한 연합 국가이다. 그 사실은 영국 국기인 유니온 잭(Union Jack)²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 건설이 난무했던 17세기 동인도 회사³⁰⁾ 건립 이후 식민지개척을 통해 나라의 부강함과 강력함을 내세웠으며, 제국의 영토를 넓혀 나갔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G1인 미국은 독립과 동시에 분리 되었고, 캐나다와 호주 등 몇몇 국가들은 아직 영연방으로 남아 있다. 그 옛날의 영광은 화려하나, 현재 영국 내부 역시 서로를 독립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곳 역시 민족³¹⁾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므로 문화의 차이

29)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국기를 하나로 합쳐서 제작한 영국의 국기를 의미한다.

30) 17세기 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자국에서 동양에 대한 무역권을 부여받아 동인도에 설립한 무역회사의 통칭이며, 동인도의 향료무역을 위해 만들어 졌다.

31) 영국 민족은 “English,” “Scottish,” “Welsh,” “Irish”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왕국 연합체이다.

를 언제까지 극복하거나 또는 압박하면서 버틸 수 있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필리핀에서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 하지만 자신들의 120개 이상의 언어들 중에서 하나인 따갈로그어를 표준어로 사용함으로써, 2중 언어 체제를 모방한다. 이곳 역시 7000개의 섬을 통치해야 하며, 2017년 5월 23일 60일간의 계엄령³²⁾이 선포된 민다나오 지역은 예전부터 반군이 점령하는 위험한 곳 중에 하나이다. 이리다 보니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원하는 대통령들은 그 쪽 지역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건 당연지사다. 필리핀 인구 대부분이 로마 가톨릭인데, 인구의 5%의 무슬림이 민다나오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부터 이곳 이슬람 반군은 독립을 요구하며 40년 넘게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실질적으로 이곳은 지금 시작된 위협이 아니고, 예전부터 위협했으며, 독립이 되기 전까지는 미래에도 위험한 지역인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듯이, 중국의 광활한 대륙과 56개가 넘는 민족적 통합³³⁾ 그리고 문화, 언어통합은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지만, 신장위구르자치구³⁴⁾와 저장자치구³⁵⁾는 지금도 독립을 원하는 자치구이다.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의 합병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퀘벡의 분리 독립, 영국의 스코틀랜드 독립요구와 필리핀 민다나오의 반군 점령 및 이슬람의 독립 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을 속박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잃어버린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되찾기 위해서 분리 독립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

공식 언어는 영어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켈트어를 사용하며, 나머지 왕국은 영어를 사용하나 각각의 방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 중이다.

- 32)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을 위해 60일간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 33) 중국은 대부분의 한족과 또 다른 55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국토면적의 60%이상은 소수민족의 것이며, 90%이상이 북방과 남방계 한족임을 감안하면, 낮은 비율의 소수민족이 제공하는 땅의 비율은 실로 엄청 크다.
- 34) 중국 북서단에 위치한 위구르족의 자치구로 간칭(简称)은 신(新)이며 수부는 우루무치(乌鲁木齐)이다.
- 35) 티베트 자치구로서 에베레스트 산, 티베트 불교 그리고 수도인 라싸와 지도자 달라이 라마 등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곳이다. 티베트족 대다수는 평균 해발 약 4천m의 티베트 고원(靑藏高原)에서 살고 있다. 1950년 중국의 강제침략 시작으로 이곳이 중국의 영토로 넘어 왔는데, 현재 인도에 티베트 임시정부가 있으며 독립을 원하고 있다.

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만들고 단순히 힘만으로 억누르거나 제제를 가하여 통치하게 된다면 반듯이 분열하게 될 것이다.

VIII. 글을 마치면서

중국은 아직도 시장자유화와 공산주의라는 2가지 체제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다. 당권과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다수 인민의 피를 흘렸다. 언론은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며, 선동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스스로 앞장선다. 대부분의 인민들은 신문과 뉴스를 멀리 한다. 동네 흔한 신문을 파는 곳이나 신문지를 본적이 없다. 연길의 경우 몇 개의 전문적으로 신문 파는 곳이 있다고 들었지만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궁금해서 여러 중국인에게 물어보니 인터넷을 보라고 이야기하였고, 다른 도시는 어떠한냐는 질문에 대도시에는 신문간판대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연길에는 흔한 교민신문 및 동포 신문 또는 중앙뉴스가 담긴 신문을 접하는 게 어려운 것일까? 궁금해진다.

그들에게 국가와 주석의 험담은 곧 의롭지 못한 것이다. 국가주석은 그들의 최고 권력자이다. 연길을 방문한 시진핑은 과거 군주제(君主制)의 절대 권력이며, 동네의 환영 내지 이קות을 다녀갔다는 증거의 플래카드를 깜짝 놀라기에 충분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체제 안에서 세뇌되어진 교육을 받으면서 서구의 토론문화나 비판하는 시민의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

중국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시아의 강국이며 우리의 이웃 나라이다. 함께 성장해야 하는 바로 옆 강대국이다. 그 옛날 사대주의적³⁶⁾ 외교를 다시 시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의 당의 체계와 국가이념을 존중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양보하는 외교술은 아마도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가끔씩 중국에서 북한의 소식을 듣는다. 그 소식은 CCTV뉴스에서 방송되는 것이며 대부분 한국의 뉴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 더 원한다면 인터넷을 검색하여

36) 개리 레드야드, “한국사의 사대주의,” 『신동아』(1968년 10월) 참조.

뉴스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으나 국가보안법상 이러한 행동이 불법이지 싶다.

2017년 5월 14일부터 15일에 걸쳐 ‘일대일로’(一帶一路)³⁷⁾ 포럼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베이징은 해외 각국의 정상들이 방문했으며 협력관계와 축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5월 14일 북한이 KN-17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했다. 중국 또한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불만이 많았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사 관련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왜 중국의 잔칫날 이런 도발을 했을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담긴 행동인 것일까? 아니면 단순하게 실험 날짜였던 걸까? 어쩌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중국이 막아 주길 바라는 세계인의 판단이 잘못 된 것은 아닌지, 한반도 관계 회복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정치는 강대국이 지배한다.³⁸⁾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서 두 개의 강대국이 대립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반드시 전쟁이 터지는 패턴을 보였다.³⁹⁾ 소련 해체 이후 한반도는 잠잠해 왔다. 하지만 현재 떠오르는 아시아의 패권국 중국과 미국은 북한을 가운데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버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념윤리(the ethic of conviction)가 지배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패턴과⁴⁰⁾ 기본적으로 책임윤리(the ethic of responsibility)가 지배하는 중국의 대외정책 패턴을⁴¹⁾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의 현명한

37)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육상으로 연결하고,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업적이며, 과거 실크로드의 재현이다.

38) 레이몽 아롱은 국제정치가 항상 소수의 강대국이 지배하는 ‘과점적’(oligopolistic) 성격을 지녔다고 진단했다. Raymond Aron, *Peace and War: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009), 95.

39) 이현휘, “미국으로 가는 길을 연다. 친미와 반미 논쟁의 철학적 해체,” 『미국사연구』, 제25집 (2007), 1-2.

40) 이현휘, “전쟁과 평화: 미국 전쟁 수행 방식의 ‘반정치적’ 성향을 사례로” 이동수 편 『지구촌과 세계시민: 세계 시민 되기』(인간사랑, 2017), 227-292.

41) 중국 대외정책의 책임윤리적 전통은 한무제의 4면정벌(四面征伐)에서 전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춘식, 『중국 패권의 뿌리와 이념』(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제6장-

대외정책의 진로를 개척해야만 할 것이다.

일찍이 조지 워싱턴은 자신의 고별사에서 미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간곡한 호소를 드린 바 있다.

타국을 습관적으로 미워하거나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에 매몰된 민족은 어느 정도 노예근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족은 적대감의 노예일 수도 있고, 애착심의 노예일 수도 있는데, 두 경우 모두 민족의 의무와 민족의 이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⁴²⁾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그들은 우리의 적인 것인지, 같은 동포로서 미안함과 애증이 섞인 마음을 껄뽀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길 바란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과 협치를 통해서 한반도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해결하는 방법에는 이견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익숙한 호오감정으로 북한을 바라볼 것인가? 북한을 바라보는 어느 한 시각에 매몰되어 스스로 노예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

이곳 연길은 지리적 특성상 한국인도 많이 거주하지만, 북한의 조선인도 많이 있다. 그들 역시 이곳에 파견근무 또는 유학 등등의 이유로 많이들 거주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고, 통일에 대한 소망은 점점 멀어져 간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의 문화를 차단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그들과의 접촉을 막으니, 서로의 관심 및 호기심은 서로에게 해가 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은 옛날 할머니에게 들던 또는 증조할머니에게 들던 머나먼 이야기가 되어 간다. 가끔씩 연길에 다니는 북한 자동차와 북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움찔하는 마음이 든다. 아마도 남한에서 받은 이념 교육 때문일 것이다.

제7장 참조. 아울러 이러한 중국 고대 대외정책의 전통이 21세기 현대 중국 대외정책을 여전히 지배한다. 자세한 내용은, Henry Kissinger, *On China* (New York: Penguin, 2011), "Prologue" 참조.

42) George Washington, "The Farewell Address"(September 17, 1796) in Burton Ira Kaufman, ed., *Washington's Farewell Address: The View from the 20th Century* (Chicago: Quadrangle Books, 1969), 26.

북한인들 역시 주체사상을 통해서 세뇌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 또한 남한에서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체제 알맞게 세뇌되어진 주체사상이 있다. 각각 자신의 나라의 언어와 문화 관습을 받아들이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서로 이해하고 바라 봐야 하는지는 자신의 몫으로 남겨 두겠다.